

2020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

산재 사망을 줄입시다 온·오프라인 연중 캠페인



I. 사업 목적



-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210-12 안전빌딩
- 전화번호 : (02)2275-3408
- 홈페이지 : www.safetynews.co.kr
- 대표자명 : 김진영

정부의 사고사망자 줄이기 정책에 적극 부응 ▶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안전신문사의 온·오프라인 매체를 총동원



사업장 노동자·사업주
안전보건·유관기관 관계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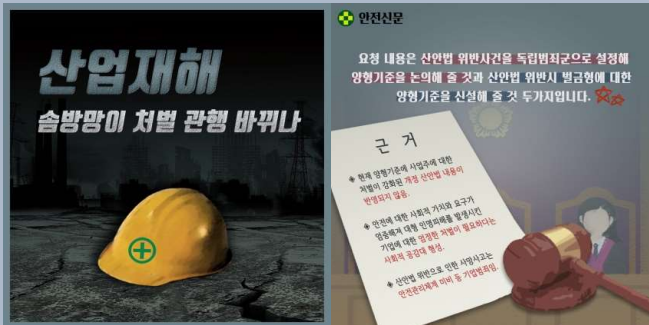
오프라인 3000명 / 온라인 3만명



II. 사업 추진내용



1 신문지상 캠페인



3 카드뉴스



2 전문가 칼럼



4 유튜브 영상

II. 사업 추진내용

1. 신문지상 캠페인

- ☞ 산재 사망과 관련된 핫이슈를 기사화해 안전신문 1면에 게재 (2회 진행 / 총 7회)
- ☞ 산재 사망사고 현황, 예방을 위한 당국의 노력, 사고현장 밀착취재, 전문가 조언 등 다양하게 구성



II. 사업 추진내용

2. 전문가 칼럼

☞ 안전보건계를 대표하는 학자, 전문가들을 동원해 산재사망 줄이기에 대한 의견 제시 (2회 진행 / 총 10회)

☞ 독자들에게 보다 친숙하고 영향력 있는 이들로 섭외

집필진 명단

김두현	한국안전학회 회장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
정혜선	대한건설보건학회 회장
김치년	한국산업보건학회 회장
최은숙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회장
원종욱	대한직업환경의학학회 회장
허 익	가천대학교 교수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HOME
오피니언
칼럼
승인 2020.05.28 18:12

[전문가 칼럼-김두현] '포스트 코로나' 안전도 함께 챙기자
한국안전학회 회장



코로나19가 세계계를 휩쓸어 지난 27일 기준으로 185개 국가에서 535만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34만5000여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어 아직 그 추세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행히 국내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참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 국민의 투철한 시민의식 등으로 그 증가 속도는 한치하 줄 어 들었고 통제가능한 안정적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곧 '포스트(Post) 코로나19'의 경제·사회 전환에서의 새로운 변화의 요구 또는 물결이 몰아닥칠 것이고 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먼저, 그리고 자주 화두에 오를 것으로는 경제살리기일 것이다. 안전과 경제살리기. 이 둘 중 우선순위를 지금껏 봤을 때 안전은 늘 뒷전이었다.

매년과 달리 산업현장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전인력에 대한 직무 개선이나 안전경영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여유가 있을 때의 모습이고 이러한 이유로 상황이 급변하거나 포스트라면 가장 먼저 안전가치의 평가절하, 안전인력의 조정, 안전투자 외면이라는 경제경영으로 회귀한다. 이번 만큼은 지난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를 바란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 정부, 안전전문기관, 학계 등의 노력으로 산업재해, 특히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발굴·시행됐고 안전관련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추진됐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960~970명 수준으로 정제돼 있던 사고사망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800명대에 진입했다.

HOME
오피니언
칼럼
승인 2020.05.13 13:20

[전문가 칼럼-안홍섭] 제조업 방식을 깨야 건설안전 성공한다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군산대학교 교수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생명지키기 노력 덕분에 30여 년간 500명 이상을 앓았던 건설업 사고사망자수가 2019년도에 처음으로 400명대로 줄었다.

하지만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전체 사고사망자수의 절반을 차지해 왔으며 이번에 달성한 건설업 사고사망자수 428명도 정확하게 전체 사고사망자수 855명의 절반에 해당해 숫자는 줄었지만 건설업에서 특별히 잘 줄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사고사망자수로 보면 일반산업보다 10배 정도 사고사망인원이 높으며 실제 노동자수를 반영하면 영국의 25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건설사고 예방의 근본적 문제는 제조업 방식의 안전관리조치에 있다. 이제까지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재해 감소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 이유는 건설에 문외한인 전문가들이 도입한 제조업 방식의 안전관리조치와 도구들을 건설안전전문가조차도 생각이 없이 그대로 답습한 데 기인한다.

제조공장과 건설현장은 생산방식이 정반대다. 제조공장에서는 설비와 작업자가 고정돼 있고 최종 물품이 움직이는 정적인 생산방식인데 반해 건설현장은 최종목적물을 지칭된 위치에 설치하기 위해 작업자와 생산설비(가시설, 장비 등)가 끊임없이 변해야 하고 이동해야 한다. 여기에서 건설현장은 제조공장과는 달리 발주자, 감리자, 설계자, 원하도급 시공자 모두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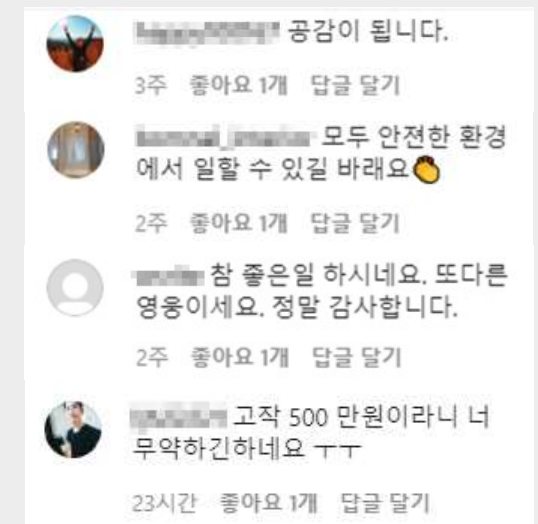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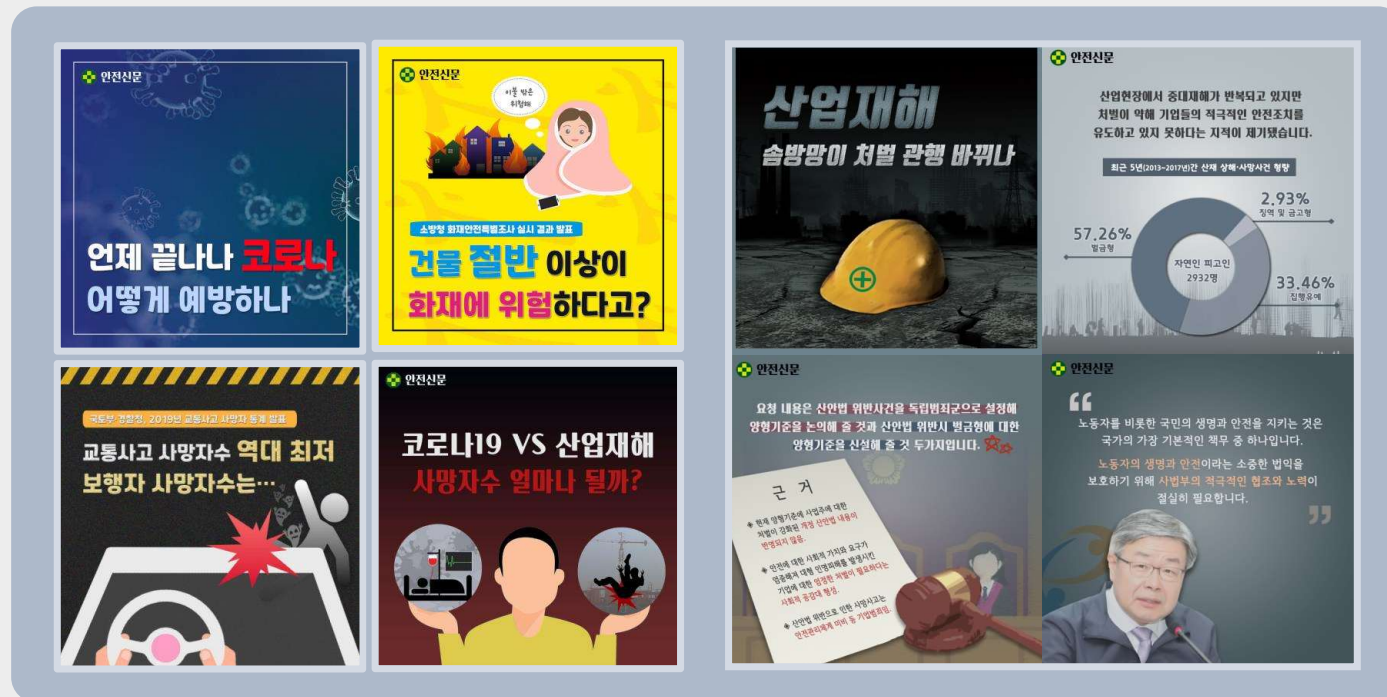
기존의 안전관리자제도는 생산방식이 정적인 제조공장이나 필요한 기능으로 다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며 특히 공장의 소유주이자 절대 의사결정권자인 발주자가 지속적으로 간여하는 건설사업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제도다.

II. 사업 추진내용

3. 카드뉴스

👉 해빙기·장마철·혹서기 등 시기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안전보건 핫이슈와 관련해 제작 (5회 진행 / 수시)

👉 안전신문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



➔ 호응·공감대 형성

II. 사업 추진내용

4. 유튜브 영상

- ☞ 안전·보건·건설 등 분야별 교육, 최신 핫이슈, 산재사망 관련 뉴스, 전문가 인터뷰 등 다양하게 시도 (2회 진행 / 총 6회)
- ☞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에 NG·메이킹 영상을 공유해 적극적으로 홍보

2019년 '원·하청 상생안전협력캠페인'



원·하청 상생안전협력
(안전신문유튜브 X 안전보건공단)

동영상 9개 **조회수 1140회** 최종 업데이트: 2019. 11. 4.

코오롱 인더스트리 경산공장 상생안전 어떻게 하고 있나?
안전신문유튜브 7:10

한화건설 상생안전 어떻게 하고 있나?
안전신문유튜브 7:32

SK 하이닉스 청주 캠퍼스 반도체 상생안전 어떻게 진행되나?
안전신문유튜브 8:26

대전도시철도공사 상생안전 어떻게 진행되나?
안전신문유튜브 7:56

필리우드 영화속에도 상생안전 우수사례가 있다고?
안전신문유튜브 6:50

제지업의 상생안전 어떻게 하고 있나?
안전신문유튜브 7:49

현대건설 상생협력 어떻게 하고 있나?
안전신문유튜브 10:35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님 어디를 그리 바빠 가십니까?
안전신문유튜브 7:10

- 전국의 안전관리 우수 사업장 9곳 방문
- 취재내용을 바탕으로 단순 나열식 편집
- **조회수 평균 1000회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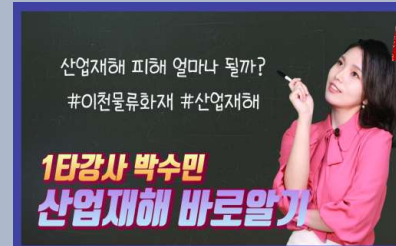
2020년 '산재 사망을 줄입시다'



조회수 10,250회

산재탈출넘버원

KBS '위기탈출 넘버원'을 패러디해 산업재해 사례 3가지와 원인·해결방안 소개



조회수 8,500회

1타강사 박수민, 산업재해 바로알기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심각성을 인강 컨셉으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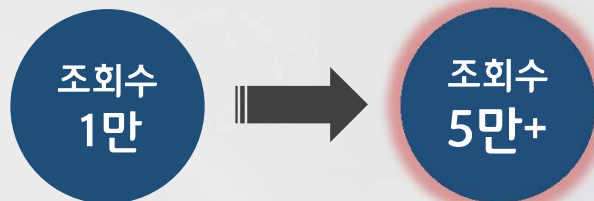
III. 향후 계획

1. 연초 계획내용 마무리

- 신문지상 캠페인, 전문가 칼럼, 카드뉴스, 유튜브 영상 등

2. 유튜브 및 SNS 활성화 방안 모색

- 기획단계부터 꼼꼼한 회의 진행
- 다양한 아이디어 및 컨셉, 편집방식을 활용해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 생산



(사례집 예시)



3. 현장 취재 ▶ 기획 보도 ▶ 사례집 제작

- 코로나19로 현장 취재 여건 부족
- 사망재해 감소 사업장 탐방, 패트룰 현장 동행기, 아이디어 현장 취재 등 스토리텔링 형식의 다양한 내용 구성

감사합니다



(주)안전신문사

ADRESS : 서울 중구 퇴계로 210-12 안전빌딩

TEL : 02)2275-3408

